



30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구조대원들에게 나눠줄 라면을 준비하고 있다. 임시취재반

시민들 눈물겨운 자원봉사

헌혈·식사 제공·유가족 위로 혼신
사법연수생·아마추어 무선사 동참

"피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헌혈하러 왔어요."

삼풍백화점 붕괴현장 인근 사법연수원 주차장 헌혈차 앞에서 차를 기다리던 정세진(17·반포고 2년)양은 이렇게 말했다.

폭격현장을 연상시키는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는 경찰과 군인 등 '정규군' 외에도 각계각층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음식물을 나르고 부상자 치료를 위해 헌혈을 하는가 하면 나아가 목숨까지 내걸고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

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강서구 방화동에서 피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곳까지 달려왔다는 30대 남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의 법조계를 이끌어갈 29기 2백93명의 사법연수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인명구조 작업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군인·경찰, 소방대원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은 부녀자들의 몫이다. 적십자 등 사회봉사단체 부녀봉사대원들은 6천 명분의 식사를 만들어 복구현장으로 내오기에 바쁘다. 백화점 주변 아파트 주부들도 사고 직후부터 밤을 뜯는 눈으로 새며 김밥을 팔아 사고현장으로 나르고 있

다.

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청천벽력같은 사고에 넋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을 다독거리는 역할도 기꺼이 맡는다. 한 젊은 복구대원은 이들을 두고 "마치 상처를 다독거리는 어머니 같다"고 말했다.

"이런 험한 일은 우리들이 제격이죠" 전남 구례에서 낄품팔러 상경한 백병선(30)씨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하루일당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와 인명구조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백씨처럼 인명구조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건물더미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하는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붕괴현장으로 뛰어든다.

사고현장에는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인명구조대와 함께 캄캄한 무덤과 같은 건물 잔해속을 뒤지며 생존해 있는 최후의 일인까지 구출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아마추어 무선사 1백20여명은 구조대원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노릇을 한다.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무선으로 사고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이들은 구조대원과 행동을 같이하며 긴박한 땅속 소식을 지상으로 전달한다.